



수월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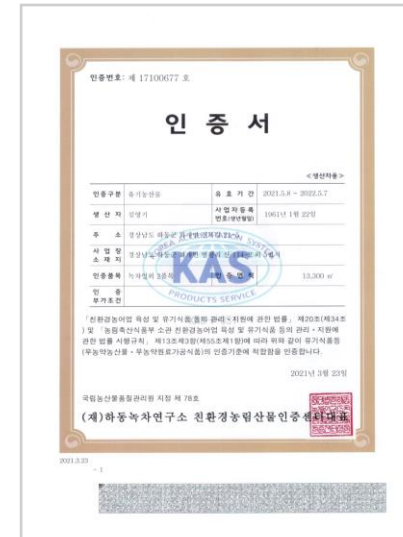
한살림 생산지 수월산방

건강과정서, 한잔의차를 우려내는 짧은 시간에
심신의안정과여러기능을 음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향유합니다.

기업개요

천혜의 환경 지리산, 그곳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은 차를 담아내는 수월산방입니다.

회사명	수월산방
대표자	김영기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진목길 21-5
직원수	2명
설립연도	2012년 4월 5일
한살림공급연월	2008년 7월
주요사업	녹차류 및 겨우살이차 제조
연간생산량	6000개 (300kg)
매출현황	연간 약 1억원



유기농산물 인증서

기업연혁

천혜의 환경 지리산, 그곳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은 차를 담아내는 수월산방입니다.

• 범왕적목반소속으로가공생산

1997~2011

• 수월산방설립

2008

2012

~현재

• 한살림공급시작

• 한살림유기농차공급



경영이념

지리산 자락이라는 천혜의 환경에서 천혜의 원료로
건강한 차를 공급합니다.



다함께 더불어

건강하고 자연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생태환경 보존과
소비자의 건강한 삶에 일조합니다.



자연 그대로

어떠한 첨가물도 없는
순수한 천연재료로
만듭니다.



안식과 건강

소비자의 건강한 삶과
생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자연 그대로의 물품을 제조합니다.

생산원칙

지리산 자연의 향과 건강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유기인증차밭에서
자란 차잎



직접 손으로
재배&가공



無 방부제
無 첨가물

한 잔의 차를 우려내는 짧은 시간에
심신의 안정과 여러기능을 음용하며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월산방은 자연을 그대로 차에 담아냅니다.

제조과정

지리산 자연의 향과 건강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1. 채엽

유기인증된차밭에서
직접손으로한잎한잎
채엽합니다.



2. 덫음

산화효소의파괴를위해
고열(약300°C)에서
덫음작업을합니다.



3. 유념

차맛이골고루잡게우려나게
세포조직을적당히파괴하는
과정을거칩니다.



4. 건조

유념된차잎을
자연에서건조시킵니다.



5. 가향

건조된차잎을은은한열로
가하여맛과향을돌우는
작업을거칩니다.



6. 포장

포장과정을거쳐
조합원에게공급합니다.



대표물품

천혜의 지리산 자연을 차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수월산방의 대표물품을 소개합니다.



발효황차



발효과정을 통해
차의 좋은 성분을 높였습니다.

물품유형

- 30g

물품 특징

5월경 수확한 찻잎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발효과정을 통해 맛과 향이 부드러워지고 차의 좋은 성분이 조화를 이뤄 마시고 나면 몸과 마음이 정갈해집니다.

지리산 자락 비워틈에서 야생에 가깝게 유기재배로 키운 차나무에서 딴 찻잎으로 만듭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청향과 씹살하고 달보드러운 감칠맛이 납니다.

녹차와 황차의 차이

녹차는 채취 후 바로 덫어 열처리함으로써 발효를 막아 생엽의 신선함과 싱그러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반면 황차는 비비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반복해 부드러운 맛과 향을 냅니다. 발효과정을 거친 황차는 끓는 물을 부어도 녹차처럼 떫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원재료

녹차생엽 100%(국산/유기)

첫물차



가장 처음 딴 찻잎으로 만든 "첫물차"

물품유형

- 30g

물품 특징

가장처음딴찻잎으로만들어첫물차라고부릅니다.절기상곡우(통상4월20일경)전에난 어린햇
순을따서만드는데,한살림녹차생산지인경남하동화개지역은지대가높은곳에위치해있어
평지에비해시기가일주일정도늦은편입니다.

지리산자락비워틈에서야생에가깝게유기재배로키운차나무에서딴찻잎으로만듭니다.

생산자가직접손으로찻잎을따고뒤편만드므로맛과향이부드러워먹기가편합니다.

차를끓이면맑은연두빛이우러나오며,온화한향과부드러운단맛이감됩니다.

원재료

녹차생엽 100%(국산/유기)

두물차



곡우 이후 두번째 수확한 첫잎으로 만든 “두물차”

물품유형

- 30g

물품 특징

곡우이후두번째로 수확한첫잎으로 만들어두물차라고 부릅니다.곡우(4월 20일경)와 입하(5월 5일경)사이에 수확하며, 한살림 녹차 생산지인 경남 하동 화개 지역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평지에 비해 시기가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첫잎의 모양이 참새의 혀를 닮아 작고 가늘다고 해 작설차라고도 부릅니다.

지리산 자락 바위틈에서 야생에 가깝게 유기 재배로 키운 차나무에서 단 첫잎으로 만듭니다.

생산자가 직접 손으로 첫잎을 따고 닦아 만드므로 맛과 향이 부드러워 먹기가 편합니다.

차를 끓이면 빛깔이 맑고 푸르며, 은은한 향과 달보드러운 맛이 납니다.

첫물차보다 맛과 향이 좀 더 진하고 깊습니다.

원재료

녹차생엽 100%(국산/유기)

겨우살이차



지리산 참나무에서 겨울을 이겨낸
겨우살이를 덕어 만들었습니다.

물품유형

- 80g

물품특징

지리산일대참나무에기생하며지라는식물로겨울에채취후
일반건조방식과달리법제과정을거쳐만들었습니다.

원재료

겨우살이 100%(국산/유기)

감사합니다.



(010) 3550-681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진목길 21-5



sooweol97@naver.com